

친족행동으로 본 독신의 원가족관계

김 순 옥(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I. 연구방향 및 연구내용

- 독신자의 원가족(부모,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친족행동에 근거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가족과의 친족행동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가?
 - * 남녀차이 있으면 이후 분석에 있어서 남녀 구분하여 분석하고, 남녀차이 없으면 남녀로 구분하지않고 남녀전체로 분석한다.
 2. 친족행동은 어느 정도인가?
 3. 누구와 어떤 친족행동을 많이 하는가?
 4. 관련 변인의 영향은 어떠한가?
 5. 기혼자의 친족행동과는 차이가 있는가?

II. 논리적 배경

1. 원가족도 분가하면 친족

- 분가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엄밀하게 말하면 가족관계가 아니고 친족관계가 된다. 다만, 한때 같은 핵가족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분가하면 이들을 제1차 친족(primary relatives) 또는 방위친족(kin of orientation)이라고 하여, 한번도 같은 핵가족에 속하지 않았던 친족들인 제2차 친족과 구분이 된다(Adams, 1980).
- 산업사회의 핵가족특성을 많이 지니고있는 현대에는 원친(遠親)과의 관계가 감소하는 대신 원가족과의 관계는 분가 후에도 더욱 강하게 잔재할 가능성이 짙다. 다시 말하면 1차 친족인 원가족에 대해서는 원가족 이외의 다른 친족인 2차 친족과의 관

계와 구분하려는 의식이 있으며, 성장 후 분가하여도 원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2. 친족행동의 개념 및 유형

1) 친족행동의 개념; 친족원간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

2) 친족행동의 유형 분류

- 정진현(1993)의 연구에서는 사교행위, 가사협조행위, 의례적인 행위로 나눔.
 - 사교행위; 특별한 날이 아닐지라도 평소에 자주 상호 방문하여 안부를 묻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 친족간에 친목회를 조직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거나 여행을 가는 행위, 휴가나 방학때 친족집에 놀러가서 지내는 등의 행위
 - 가사협조행위; 친족상호간에 개인적인 또는 집안의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상담자와 피상담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같은 일에 봉착 했을 때 금전적인 무상 원조 또는 대여하는 행위, 혼례·제례·상례·회갑잔치 등 집안의 대사(大事)때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제공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
 - 의례적인 행위;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 때, 기제사(忌祭祀) 때, 웃어른의 생신 때,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집안의 대사(大事) 때, 그리고 친족원이 아플 때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상호 방문하여 인사를 하거나 안부를 묻는 등의 행위
- 이동원(1984)의 연구에서는 의례적 관계, 정서적 관계, 일상적 도움으로 분류함.
- 이광자(1988)의 연구에서는 의례적 관계, 여가활동, 일상적 도움, 경제적 도움으로 구분함.
- 이원주(1989)의 연구에서는 부부에 관한 일, 자녀에 관한 일, 자기자신에 관한 일, 경제적인 일, 직업 및 사업에 관한 일, 여성의 경우 일반가사에 관한 일, 친족에 관한 일, 관혼상제에 관한 일을 그 내용으로 하여 물질적, 심리적, 의례적 지지를 포함함.
- 김성희(1992)의 연구에서는 의례적 관계, 사회적 활동, 일상적 도움, 경제적 도움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함.
- 전미경(1992)의 연구에서는 일상적 관계, 의례적 관계, 일상적 도움, 경제적 도움, 심리적 도움, 위기시 도움으로 나누었음.
- 오명희(1997)의 연구에서는 친족관계를 정서적, 일상적, 경제적, 친교적 관계로 봄.

- 박시라(1999)의 연구에서는 친족유대를 기능적, 친목적, 의례적 유대의 세 차원으로 분류함.

▶ 종합하여 친족행동 유형을 분류하면

- 일상적 행동; 평소 상호 방문하여 안부를 묻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행동
- 의례적 행동; 명절이나 집안의 대사(大事) 때에 상호 방문하여 안부를 묻는 행동
- 가사 협조; 문제 해결이나 가사에 대한 협조를 주고 받는 행동
- 경제적 도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금전적으로 무상 원조하거나 대여하는 행동

3. 관련변인 선정

개인의 인구사회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 그리고 원가족과 관련된 물리적 변인, 부모관련 와 관련된 변인으로 한정하였다.

- 개인의 인구사회적 변인과 원가족과 관련된 변인은 선행연구들(김성희, 1992; 김수진, 김순옥, 2001; 김순옥, 김수진, 2002; 박시라, 1999; 이광자, 1988; 이동원, 1984; 이원주, 1989; 이효재, 1971; 전미경, 1992; 정진현, 1993; 한남제, 1988)에 근거하여 선정함.
-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부모관련변인은 독신과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선정함.

▶ 선정된 변인은 다음과 같다.

- 인구사회적 변인; 성, 연령, 학력, 종교, 직업, 소득, 결혼경험유무
- 심리적 변인; 독신생활에 대한 만족도
- 원가족 관련 물리적 변인; 출생순위, 원가족과의 지리적 거리
- 부모관련변인; 부모의 결혼압력, 부모의 결혼생활행복도,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감, 독신은 부모에게 불효라는 생각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 기초강연 참조

2. 측정도구

측정도구인 설문지의 문항 중 친족행동 문항에 대해서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친족행동의 척도는 김수진, 김순옥(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 기초하여 친족행동을 일상적 행동, 의례적 행동, 가사 협조, 경제적 도움의 4가지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친족행동을 2문항씩 총 8문항으로 구성함(표1 참조).
 - 4점 Likert형 척도임.
 - 부모, 형제, 자매와의 관계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함.
 - 응답의 점수가 높을수록 친족행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 타당도는 본 연구팀에 의하여 검증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59-.86임(표2 참조).

〈표 1〉 친족행동 측정문항

친족 행동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 (2)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4)
일상적 행동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안부전화를 하거나 왕래한다.				
	휴일이나 휴가에 같이 지낸다.				
의례적 행동	명절이나 기제사에 만난다.				
	생일에 방문하거나 만난다.				
가사 협조	일상적인 가사일이나 행사에 도움을 주고받는다.				
	개인적인 일이나 집안 일을 상의한다.				
경제적 도움	돈이 필요할 때 무상으로 보조받거나 보조한다.				
	돈이 필요할 때 빌리거나 빌려준다.				

〈표 2〉 신뢰도 계수

	부모	형제	자매
일상적 행동	.59	.69	.75
의례적 행동	.68	.59	.67
가사 협조	.78	.76	.86
경제적 도움	.74	.80	.77

3. 분석방법

- SPSS for WINDOW 10.0판 프로그램을 이용함.
-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F-test와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함.

IV. 연구결과

1. 원가족과의 친족행동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가?

		구분(N)	M(SD)	t값	P수준
부모	일상적 행동	남(77)	2.80(.56)	-2.395	.018
		녀(80)	3.02(.59)		
	의례적 행동	남(76)	3.12(.52)	.270	NS
		녀(80)	3.09(.61)		
	가사 협조	남(77)	2.94(.54)	-1.253	NS
		녀(80)	3.06(.61)		
경제적 도움	남(77)	2.83(.65)	-.783	NS	
	녀(80)	2.91(.65)			
친족행동전체	남(76)	2.92(.44)	-1.309	NS	
	녀(80)	3.02(.51)			
형제	일상적 행동	남(65)	2.65(.61)	-.311	NS
		녀(61)	2.69(.65)		
	의례적 행동	남(65)	2.91(.40)	1.664	NS
		녀(61)	2.75(.62)		
	가사 협조	남(64)	2.82(.58)	1.221	NS
		녀(61)	2.69(.63)		
경제적 도움	남(65)	2.83(.55)	1.240	NS	
	녀(59)	2.69(.74)			
친족행동전체	남(64)	2.81(.43)	1.317	NS	
	녀(59)	2.70(.54)			
자매	일상적 행동	남(44)	2.75(.49)	-1.617	NS
		녀(65)	2.95(.70)		
	의례적 행동	남(44)	2.90(.45)	-.089	NS
		녀(65)	2.91(.64)		
	가사 협조	남(43)	2.92(.41)	-.511	NS
		녀(65)	2.98(.67)		
경제적 도움	남(44)	2.84(.48)	-.101	NS	
	녀(65)	2.85(.75)			
친족행동전체	남(43)	2.85(.37)	-.662	NS	
	녀(65)	2.92(.59)			

p 수준 = .05

- ▶ 부모와의 일상적인 행동 이외에는 남녀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와의 일상적 행동에 의한 관계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가진다.

* 남녀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후 분석은 남녀를 구분하지않고 남녀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2. 원가족과의 친족행동 정도는 어떠한가?

	부모			형제			자매		
	N	M	SD	N	M	SD	N	M	SD
일상적 행동	157	2.91	.58	126	2.67	.62	109	2.87	.63
의례적 행동	156	3.11	.57	126	2.83	.52	109	2.90	.57
가사 협조	157	3.00	.57	125	2.76	.60	108	2.95	.58
경제적 도움	157	2.87	.65	124	2.76	.65	109	2.85	.65
친족행동전체	156	2.97	.48	123	2.76	.49	108	2.89	.51

- ▶ 모든 친족행동이 4점 만점 중 2.67에서 3.11로, 중간점수인 2.5보다 높다. 따라서 원가족과의 관계가 비교적 유지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누구에게 친족행동을 더 많이 하는가?

		부모	형제	자매
일상적 행동	M	2.91	2.67	2.87
	순위	1	3	2
의례적 행동	M	3.11	2.83	2.90
	순위	1	3	2
가사 협조	M	3.00	2.76	2.95
	순위	1	3	2
경제적 도움	M	2.87	2.76	2.85
	순위	1	3	2

- ▶ 1. 모든 친족행동에서 부모 ==> 자매 ==> 형제
즉, 부모와의 관계가 자매나 형제보다 많고, 형제보다는 자매와의 관계가 더 많다.

4. 어떤 친족행동을 더 많이 하는가?

	부모		형제		자매	
	M	순위	M	순위	M	순위
일상적 행동	2.91	3	2.67	4	2.87	3
의례적 행동	3.11	1	2.83	1	2.90	2
가사 협조	3.00	2	2.76	2	2.95	1
경제적 도움	2.87	4	2.76	2	2.85	4

▶ 원가족과의 모든 관계에서 의례적 행동과 가사 협조가 일상적 행동이나 경제적 도움 보다 많이 이루어진다.

5. 원가족과의 친족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인구사회적 변인						심리 변인	원가족 관련변인		
		성	연령	학력	종교	직업	소득	결혼 경험	독신 만족	출생 순위	거리
부모	일상적 행동	*				*		*			
	의례적 행동		D	*		D	D				D
	가사 협조		D	D							
	경제적 도움			D	D	*					
형제	일상적 행동		D		D			*			
	의례적 행동						D				*
	가사 협조		D				D				
	경제적 도움					D	D				
자매	일상적 행동		D					*			
	의례적 행동		D				*			D	
	가사 협조		D							D	
	경제적 도움		D				D				

* ;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D ; p<.05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Duncan의 사후검증에서는 차이를 나타냄.

▶ 부모와의 관계에서;

- 학력, 직업은 여러 친족행동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 성, 연령, 종교, 소득, 결혼경험, 거리는 일부 친족행동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 연령, 소득은 여러 친족행동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 종교, 직업, 독신만족도, 거리, 출생순위는 일부 친족행동에서만 차이를 나타냈다.

5-1-1. 부모와의 일상적 행동에 대한 변인별 차이

	구 분(N)	M(SD)	Duncan	t값 또는 F값
성	남(77)	2.80(.56)		-2.395 *
	녀(80)	3.02(.59)		
직업	전문·관리직(50)	3.07(.65)	A	2.836 *
	사무직(41)	2.89(.49)	A B	
	자영·기술·판매·서비스직(30)	2.63(.64)	B	
	무직(13)	3.00(.54)	A	
	기타(23)	2.91(.42)	A B	
결혼경험	무(147)	2.88(.57)		-2.24 *
	유(10)	3.30(.63)		

* ; p<.05

▶ 부모와의 일상적 행동은 여자가 남자보다, 전문 관리직과 무직이 자영 기술 판매 서비스직보다, 결혼 경험이 있는 독신이 결혼경험 없는 독신보다 더 많이 행한다.

5-1-2. 부모와의 의례적 행동에 대한 변인별 차이

	구 분(N)	M(SD)	Duncan	t값 또는 F값
연령	30-34세(93)	3.08(.52)	A	2.044
	35-39세(27)	3.02(.66)	A	
	40-44세(29)	3.17(.63)	A	
	45-49세(7)	3.57(.45)	B	
학력	고졸(11)	3.05(.42)	A	3.418 *
	대졸(97)	3.03(.52)	A	
	대학원 이상(48)	3.28(.66)	B	
직업	전문·관리직(50)	3.25(.59)	A	2.779 *
	사무직(40)	3.13(.48)	A B	
	자영·기술·판매·서비스직(30)	2.88(.63)	B	
	무직(13)	3.19(.48)	A B	
	기타(23)	3.00(.56)	A B	
소득	150만원 미만(62)	3.03(.67)	A	2.146
	150만원 - 250만원 미만(69)	3.09(.48)	A B	
	250만원 이상(24)	3.31(.48)	B	
거리	걸어서 20분 이내(29)	3.05(.72)	A B	1.585
	차로 30분 이내(18)	3.33(.51)	B	
	차로 1시간 내외(21)	3.19(.60)	A B	
	차로 2시간 내외(38)	3.16(.45)	A B	
	차로 3시간 이상(48)	2.98(.55)	A	

* ; p<.05

▶ 부모와의 의례적인 행동은 40대 후반이 다른 연령층보다, 대학원 이상이, 전문 관리직이 자영 기술 판매 서비스직보다, 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독신이 150만원 미만인 독신보다, 부모집과의 거리가 차로 30분 이내인 독신이 차로 3시간 이상인 독신보다 더 많이 행한다.

5-1-3. 부모와의 가사 협조에 대한 변인별 차이

	구 분(N)	M(SD)	Duncan	t값 또는 F값
연령	30-34세(94)	3.01(.49)	A B	1.185
	35-39세(27)	2.91(.64)	A	
	40-44세(29)	2.97(.73)	A B	
	45-49세(7)	3.36(.63)	B	
학력	고졸(11)	2.77(.56)	A	2.220
	대졸(98)	2.96(.54)	A B	
	대학원 이상(48)	3.13(.63)	B	

▶ 부모와의 가사 협조는 40대 후반이 30대 후반보다, 대학원 이상이 고졸보다 더 많이 행한다.

5-1-4. 부모와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변인별 차이

	구 분(N)	M(SD)	Duncan	t값 또는 F값
학력	고졸(11)	2.55(.69)	A	2.634
	대졸(98)	2.84(.62)	A B	
	대학원 이상(48)	3.01(.68)	B	
종교	없음(78)	2.89(.60)	A B	2.409
	개신교(42)	2.92(.66)	A B	
	불교(9)	2.39(.78)	A B	
	카톨릭(25)	2.98(.68)	B	
	기타(3)	2.33(.76)	A	
직업	전문·관리직(50)	3.08(.68)	A	2.941 *
	사무직(41)	2.71(.59)	A B	
	자영·기술·판매·서비스직(30)	2.67(.55)	B	
	무직(13)	2.92(.61)	A B	
	기타(23)	2.96(.72)	A B	

* ; $p < .05$

- ▶ 부모와의 경제적 도움은 대학원 이상이 고졸보다, 전문 관리직이 자영 기술 판매 서비스직보다 더 많이 행한다.

5-2-1. 형제와의 일상적 행동에 대한 변인별 차이

	구 분(N)	M(SD)	Duncan	t값 또는 F값
연령	30-34세(76)	2.73(.57)	A	3.779 *
	35-39세(19)	2.63(.74)	A	
	40-44세(26)	2.40(.62)	A	
	45-49세(5)	3.30(.45)	B	
종교	없음(61)	2.63(.63)	A	1.400
	개신교(36)	2.76(.64)	A	
	불교(6)	2.75(.27)	A	
	카톨릭(21)	2.69(.64)	A	
	기타(2)	1.75(.35)	B	
독신만족	매우 만족(7)	2.21(.76)	A	2.478 *
	만족(59)	2.79(.64)	A	
	보통(48)	2.68(.50)	A	
	불만(7)	2.29(.39)	A	
	매우 불만(5)	2.40(1.08)	A	

* ; p<.05

- ▶ 형제와의 일상적 행동은 40대 후반이 다른 연령층보다 더 많이 행한다.

5-2-2. 형제와의 의례적 행동에 대한 변인별 차이

	구 분(N)	M(SD)	Duncan	t값 또는 F값
소득	100만원 미만(24)	2.75(.64)	A	1.883
	100만원-150만원 미만(26)	2.87(.48)	A	
	150만원-200만원 미만(40)	2.86(.42)	A	
	200만원-250만원 미만(16)	3.00(.52)	A	
	250만원-300만원 미만(12)	2.96(.45)	A	
	300만원 이상(7)	2.36(.63)	B	
거리	걸어서 20분 이내(13)	2.65(.75)	A	2.406 *
	차로 30분 이내(16)	3.03(.50)	B	
	차로 1시간 내외(28)	3.00(.38)	B	
	차로 2시간 내외(26)	2.69(.43)	A B	
	차로 3시간 이상(41)	2.77(.55)	A B	

* ; p<.05

- ▶ 형제와의 의례적 행동은 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때, 형제의 집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20분 이내일 때에 차로 30분 또는 1시간 내외일 때보다 더 많이 행한다.

5-2-3. 형제와의 가사 협조에 대한 변인별 차이

	구 분(N)	M(SD)	Duncan	t값 또는 F값
연령	30-39세(95)	2.83(.60)		2.542 *
	40-49세(30)	2.52(.58)		
소득	100만원 미만(24)	2.67(.69)	A	1.687
	100만원-150만원 미만(26)	2.85(.56)	A	
	150만원-200만원 미만(40)	2.75(.57)	A	
	200만원-250만원 미만(16)	2.91(.61)	A	
	250만원-300만원 미만(12)	2.88(.53)	A	
	300만원 이상(6)	2.17(.68)	B	

* ; p<.05

- ▶ 형제와의 가사 협조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때 더 많이 행한다.

5-2-4. 형제와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변인별 차이

	구분(N)	M(SD)	Duncan	t값 또는 F값
직업	전문·관리직(38)	2.83(.76)	A B	1.602
	사무직(34)	2.60(.59)	A B	
	자영·기술·판매·서비스직(25)	2.76(.48)	A B	
	무직(7)	2.50(.76)	A	
	기타(20)	3.00(.63)	B	
	100만원 미만(24)	2.60(.69)	A B	
100만원-150만원 미만(26)	2.92(.64)	B		
150만원-200만원 미만(39)	2.77(.59)	A B		
200만원-250만원 미만(16)	2.88(.70)	B		
250만원-300만원 미만(11)	2.82(.60)	B		
300만원 이상(7)	2.29(.70)	A		

- ▶ 형제와의 경제적 도움은 소득에 따라 일정한 경향이 없으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때에 더 적게 행한다.

5-3-1. 자매와의 일상적 행동에 대한 변인별 차이

	구분(N)	M(SD)	Duncan	t값 또는 F값
연령	30-34세(59)	2.87(.57)	A	1.343
	35-39세(20)	2.83(.75)	A	
	40-44세(24)	2.77(.64)	A	
	45-49세(6)	3.33(.61)	B	
독신만족	매우 만족(7)	2.50(.76)	A	2.597 *
	만족(52)	3.00(.59)	A B	
	보통(38)	2.72(.53)	A B	
	불만(7)	3.21(.81)	B	
	매우 불만(5)	2.60(.82)	A	

* ; p<.05

- ▶ 자매와의 일상적 행동은 40대 후반일 때에 더 많이 행하며, 독신생활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이면 불만인 경우보다 더 적게 행한다.

5-3-2. 자매와의 의례적 행동에 대한 변인별 차이

	구분(N)	M(SD)	Duncan	t값 또는 F값
연령	30-34세(59)	2.88(.45)	A	1.303
	35-39세(20)	2.83(.63)	A	
	40-44세(24)	2.92(.72)	A B	
	45-49세(6)	3.33(.75)	B	
소득	100만원 미만(24)	2.88(.68)	A B	2.442 *
	100만원-150만원 미만(20)	3.13(.39)	B	
	150만원-200만원 미만(32)	2.81(.49)	A B	
	200만원-250만원 미만(15)	2.80(.49)	A B	
	250만원-300만원 미만(10)	3.25(.68)	B	
	300만원 이상(7)	2.50(.71)	A	
출생순위	첫째(24)	2.69(.66)	A	2.295
	중간(59)	2.95(.58)	A B	
	막내(25)	3.00(.43)	B	

* ; p<.05

- ▶ 자매와의 의례적 행동은 40대 후반이 30대보다, 막내가 첫째보다 더 많이 행한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이 없으나 300만원 이상일 때 더 적게 행한다.

5-3-3. 자매와의 가사 협조에 대한 변인별 차이

	구분(N)	M(SD)	Duncan	t값 또는 F값
연령	30-34세(58)	2.97(.49)	A B	1.378
	35-39세(20)	2.80(.70)	A	
	40-44세(24)	2.94(.66)	A B	
	45-49세(6)	3.33(.52)	B	
출생순위	첫째(24)	2.81(.67)	A	2.105
	중간(59)	2.93(.58)	A B	
	막내(24)	3.15(.43)	B	

▶ 자매와의 가사 협조는 40대 후반이 30대 후반보다, 막내가 첫째보다 더 많이 행한다.

5-3-4. 자매와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변인별 차이

	구분(N)	M(SD)	Duncan	t값 또는 F값
연령	30-34세(59)	2.89(.53)	A B	1.506
	35-39세(20)	2.65(.78)	A	
	40-44세(24)	2.81(.73)	A B	
	45-49세(6)	3.25(.88)	B	
소득	100만원 미만(24)	2.71(.66)	A B	1.508
	100만원-150만원 미만(20)	3.13(.48)	B	
	150만원-200만원 미만(32)	2.78(.55)	A B	
	200만원-250만원 미만(15)	2.80(.75)	A B	
	250만원-300만원 미만(10)	3.05(.76)	A B	
	300만원 이상(7)	2.57(.93)	A	

▶ 자매와의 경제적 도움은 40대 후반이 30대 후반보다 더 많이 행한다. 그리고 소득에 따른 일정한 경향은 없으나 300만원 이상이 100만원-150만원일 때 보다 더 적게 행한다.

5-4. 부모와의 친족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부모관련변인은?

	부모의 결혼압력	부모의 결혼생활행복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감	독신은 불효라는 생각
일상적 행동	*			
의례적 행동				
가사 협조	*			
경제적 도움	*	*		

* ; p<.05

- ▶ 부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인 부양책임감이나 불효라는 생각여부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의 변인인 부모의 독신자녀에 대한 결혼 압력은 부모와의 여러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며, 부모들의 결혼행복도 역시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5-4-1. 부모와의 친족행동에 대한 부모관련변인별 차이

	부모관련변인	구분(N)	M(SD)	Duncan	t값 또는 F값
일상적 행동	부모의 결혼압력	낮다(95)	2.99(.59)		2.257 *
		높다(62)	2.78(.56)		
가사 협조	부모의 결혼압력	낮다(95)	3.10(.55)		2.756 **
		높다(62)	2.85(.58)		
경제적 도움	부모의 결혼압력	낮다(95)	2.98(.65)		2.582 **
		높다(62)	2.71(.62)		
	부모의 결혼생활행복	행복(74)	2.95(.63)	A	3.475 *
		보통(72)	2.86(.65)	A	
	불행(11)	2.41(.63)	B		

* ; p<.05 ** ; p<.01

- ▶ 부모의 결혼압력이 높을 때 의례적 행동을 제외한 모든 행동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부모의 결혼생활이 불행하면 경제적 도움행동이 적어진다.

6. 독신의 친족행동은 기혼자와 비교하면 어떠한가?

		남 자			여 자			전 체		
		독신		기혼자	독신		기혼자	독신		기혼자
부모	일상적 행동	70.0	<	80.8	75.5	<	81.2	72.8	<	81.0
	의례적 행동	78.0	<	96.0	77.3	<	91.0	77.8	<	93.6
	가사 협조	73.5	<	80.2	76.5	<	84.4	75.0	<	82.4
	경제적 도움	70.8	<	74.8	72.8	>	66.6	71.8	>	70.8
형제 자매	일상적 행동	67.3	<	71.6	69.3	<	78.2	68.5	<	75.0
	의례적 행동	72.3	<	89.0	69.3	<	85.2	70.5	<	87.2
	가사 협조	70.5	>	69.4	70.5	<	74.6	70.5	<	72.0
	경제적 도움	70.5	>	56.8	69.8	>	52.2	70.0	>	54.6

<비교>

1. 기혼자의 친족행동점수는 김순옥, 김수진(2002)의 연구에서 인용함.
2. 독신의 원점수는 4점만점, 기혼자의 원점수는 5점만점이었는데, 비교를 위하여 백분 위점수로 환산한 것임.

- ▶ 전체적으로 보면 독신자가 기혼자보다 부모나 형제자매와의 친족행동이 더 적다. 다만 부모, 형제자매와의 경제적 도움; 독신여자>기혼여자 형제자매와의 가사협조, 경제적 도움; 독신남자>기혼남자

V. 요약 및 함의

1. 일반적 경향

- 거의 모든 친족행동에서 남녀 차이는 없었다. 다만 독신여자가 독신남자보다 부모와의 일상적 행동을 더 하였다.
- 원가족과의 친족행동은 전체적으로보아 비교적 행해지는 편이다.
- 부모와의 친족행동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자매, 형제의 순이다.
- 의례적 행동과 가사 협조가 일상적 행동이나 경제적 도움보다 더 많다.
- 독신자가 기혼자보다 전체적으로는 부모나 형제자매와의 친족행동이 더 적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독신이 기혼보다 부모나 형제자매와의 경제적 도움행동을 더 많이 하고, 남자의 경우는 독신이 기혼보다 형제자매와의 가사협조와 경제적 도움행동을 더 많이 한다.

▶ 위와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독신의 원가족과의 친족행동이 전체적으로 중간점수 이상(2.67-3.11/4)이지만 매우 높지않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원가족과는 비교적 독립된 독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 4점 중 3점내외를 유지하는 것은 원가족에 대한 의존적 관계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친족주의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둘째, 독신은 부모와의 관계를 형제자매와의 관계보다도 더 밀접하게 유지한다. 같은 원가족이라도 부모는 직계혈족이면서 친족관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핵가족의식이 계속되지만,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으로서 형제자매가 그들의 배우자를 맞이하게 되면 핵가족으로서의 의식이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셋째, 독신은 남자형제보다도 여자형제와의 관계를 더 많이 갖는데, 관계 내용은 의례나 가사협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는 명절, 생일 등의 의례나 가사가 여성중심적인 활동이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독신은 기혼자와는 다른 친족관계 특성을 보인다. 즉 기혼자에 비하여 독신은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일상적 행동, 의례적 행동, 가사 협조는 덜 행하였으나 경제적 도움행동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유재산 소유의 기본단위가

핵가족이라는 점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즉 미혼인 독신은 자신이 형성한 핵가족이 없기 때문에 부모와의 핵가족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지만, 이미 자신의 핵가족을 형성한 기혼자는 부모와의 핵가족의식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련변인의 영향

- 부모와의 친족행동과 형제자매와의 친족행동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나 영향의 내용이 다르게 나타났다.
- 부모와는
 - 독신여자가 독신남자보다 일상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
 - 40대후반이 의례적 행동, 가사 협조가 더 많다.
 - 대학원 이상이 의례적 행동, 가사 협조, 경제적 도움이 더 많다.
 - 전문·관리직이 자영·기술·판매·서비스직보다 일상적 행동, 의례적 행동, 경제적 행동이 더 많다.
 - 고소득(250만원이상) 독신이 저소득(150만원미만) 독신보다 의례적 행동이 더 많다.
 - 결혼경험 있는 독신이 없는 독신보다 일상적 행동이 더 많다.
 - 차로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차로 30분 이내인 경우보다 의례적 행동이 더 많다.
 - 부모가 결혼하라는 압력이 높으면 일상적 행동, 가사 협조, 경제적 도움이 더 적어지며, 부모의 결혼생활이 불행하면 경제적 도움행동이 더 적어진다.
- ▶ 위와 같은 결과에서 대학원이상의 학력과 고소득의 전문관리직 직업을 가진 결혼경험이 있는 40대후반의 독신이 부모와의 관계를 더 많이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하고, 독신자녀에게 결혼하라는 압력을 가하지않고, 멀리 떨어져 살 때에 더 적극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유지된다. 이것은 독신 자신이 확실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니고 있을 때, 그리고 부모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낄 때에 부모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형제자매와는
 - 40대 후반이 형제자매와의 일상적 행동, 가사 협조가 많고, 자매와의 의례적 행동, 경제적 도움이 더 많다.
 - 고소득(300만원이상)이 형제자매와의 의례적 행동, 경제적 도움이 더 많고, 형제와의 가사 협조가 더 많다.
 - 막내가 첫째보다 자매와의 의례적 행동, 가사 협조가 더 많다.

- 독신생활에 대한 만족/불만족은 형제자매와의 일상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경향이 일정하지는 않다. 독신생활이 불만인 독신은 자매와의 일상적 행동이, 독신 생활에 대하여 만족인 독신은 형제와의 일상적 행동이 더 많다.
- ▶ 위와 같은 결과에서 고소득의 40대후반이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막내가 자매와의 관계를 더 많이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심리적 여유로 작용하거나, 나이 들어가면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외로움이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더 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막내가 자매와의 관계가 더 많은 것은 막내의 의존적 특성을 시사하기도 하고, 부모에 대한 의무나 부계적 의식에 있어서 첫째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참 고 문 헌

- 김성희(1992). 도시 핵가족 주부의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 : 대구시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김순옥(2001). 결혼초기 부부의 친족행동 및 배우자의 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91-111.
- 김순옥, 김수진(2002). 결혼초기 부부의 친족행동 대상 및 정도에 대한 연구. 생활과학(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5, 195-214.
- 박시라(1999). 자녀양육기 기혼남성의 친족유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명희(1997). 친족관계망 밀집도에 따른 부부역할 구조에 관한 연구 : 도시 핵가족을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광자(1988).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 도시 중산층 핵가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동원(1984). 도시주부의 관계망에 대한조사(1)-시가 및 친가와외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4, 7-36.
- 이원주(1989). 서울시 기혼남녀의 친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미경(1992). 도시 저소득층 부인의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현(1993). 한국도시주민의 친족관계와 친족의식 :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호재(1971). 도시인의 친족관계. 서울: 한국문화연구원.
- 한남제(1988). 도시주민의 친족관계. 한국사회학, 22(여름), 35-59.
- Adams. B., (1980). The Family :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Chicago :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